

이재명 “벤처투자 예산 10조...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 열것”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연 30만곳 신산업 창업 유도 투자형 R&D 펀드 1조원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허위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납품업체가 집단을 결성해 집단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쪽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신법 우선 원칙이 있어 새 법을 만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실현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 증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금융·조세·규제를 개선하고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지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돛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

날 해방”이라며 “우리가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절대 ‘호남홀대론’ 말 안 나오게 할 것”

재경호남향우회 찾아 지지 호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절대 ‘호남 홀대론’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주최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2000년대 초반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2005년 광주지검을 떠나며 송별식장에서 전별사를 받았는데 광주에서의 인연이 하도 따뜻하고 정이 많이 들어 전별사를 다 잊지 못했다”고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호남에서 기존 산업은 더욱 디지털화하고 첨단 신성

장 사업도 자리 잡도록 해서 광주·전남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향우회 회원들은 전남지역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건립, 풍력발전단지 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윤 후보는 “전남대 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들고 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 병원을 여러 곳에 만들고 전남대 의대가 그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의료계가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홍 씨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성역과 1대장”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정규직 폐지”를 주장한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선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후보는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은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선대위에서 이분이 전에 하신 이야기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노 위원장 영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대위가 논란의 발언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다시 정치평론 나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꼽혔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시 정치평론에 나선다.

8일 유 전 이사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자와 대화

를 나눈다. 유 전 이사장은 약 50여 분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인연 및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힐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정치비평가로서의 활동을 재개한다. 연말부터 한 방송에 고정 출연하며 대선 때까지 정치 비평을 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유 전 이사장 측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기를 마쳤으니 정치 비평을 재개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제도권 정치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유 전 이사장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이 후보의 선대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오섭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차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조 의원은 앞서 ‘쿠기뉴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머니투데이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을 차지하게 됐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불공정의 정상화 ▲국가균형발전 ▲행정적폐 청산 ▲지역현안 해결 등 5대 실천과제를 세웠다.

특히 광주 학동 참사와 카카오톡 시장독점 문제 등 안전불감증, 불공정한 독점적 지배구조 등 현안 이슈를 주도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사와 유가족, 카카오톡모빌리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냈다.

현대산업개발의 ‘가해자’ 인정을 이끌어냈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으로 유가족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카카오톡에는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를 약화한 택시운전 업계와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 소통과 상생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LH 구시대적 건축방식 ‘벽식구조 고집’ ▲공간소모 10년 새 4.8배 급증 ▲국토부 예타사업 양극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돌러막기’ ▲건설현장 하도급 위반 파주기 ▲성과공유제 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 ▲호남권 항행안전시설 교체 뒷전 등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조오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올바른 성과와 평가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칼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p>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p> <p>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 (보2천,월200) 급매가 -> 4억 5천</p> <p>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 (보1천,월100) 급매가 -> 2억 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010-6670-9800</p>